



2대리구 청도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6주일 2022. 05. 22. (다해) 제2322호

제1독서 사도 15,1-2.22-29 **화답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2독서** 묵시 21,10-14.22-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4,23-29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집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행정차장 | 김지현 세례자요한 신부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세 1,1)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생물과 인간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원죄 이후, 자연은 야생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은 뚝뚝해졌지만, 알몸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과 환경에 손을 대어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집을 지어주셨듯이, 하느님을 닮은 사람도 역시 집을 짓습니다.



▲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보기
QR코드 스캔

살기 위한 집, 일하기 위한 집, 물건을 모아둘 집, 놀기 위한 집,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집도 있습니다. 절, 사원, 예배당과 성당. 이 집은 하느님이 사시도록 사람이 지어드린 집이 아닙니다. 그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집일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이 땅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성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으며 점점 더 하느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먹는 것만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성전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요한 14,26)



▲ 찬미반오소서 행동
7년 여정에 동참하기
QR코드 스캔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집,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예쁜 집으로 완성되길 희망하지만, 지금 우리는 큰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과 기후 위기. 1년 전 교황님은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시작하자고 요청하셨고, 이에 모든 교회는 응답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디까지 와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예쁜 집이 완성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도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필문**



밋 세바 (2사무 11-12장; 1열왕 1-2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다윗에게는 여덟 명의 정실부인이 있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시작으로 여덟 번째 아내가 밋 세바입니다.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 밋 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가 낳아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마태 1,6)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이 남편 있는 여인을 취했던 과오를(2사무 11장)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밋 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남편 우리야는 다윗의 최정에 삼십 인 부대의 용사들이었던 듯합니다(2사무 23,34,39). 특히 우리야는 히타이트 출신의 군인으로서 전우들과 생사고락을 나누고(2사무 11,11) 출정 중에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관례를 따르는(신명 23,10-12; 1사무 21,5-6)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 아내뿐 아니라 목숨마저 빼앗겼습니다.

성경 저자는 밋 세바를 공모자 또는 피해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왕명으로 궁에 발을 들였고 다윗의 아이를 가졌으며, 남편이 전사한 후에는 다윗의 불림을 받아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상의 막연한 추측은 독자의 상상일 뿐, 실상 저자의 관심은 다윗의 범죄와 즉각적인 회개, 하느님의 용서 그리고 보속으로 주어졌던 가문의 시련을 생생하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밋 세바는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잉태한 첫아이를 잃었으나, 이후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하느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어 “여디드야”(주님의 사랑받는 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후 밋 세바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대목에서 다시 등장합니다(1열왕 1-2장). 다윗이 노쇠해지자 왕위 계승 1순위였던 넷째 아도니야는 스스로 임금 되려 했고, 이때 궁정 예언자 나탄이 밋 세바를 찾아와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도록 다윗을 설득하게 합니다. 이에 동조한 밋 세바의 행보는 언뜻 모종의 ‘정치적 책략’처럼 비치

지만, 권력 다툼에서 희생된 다른 왕자들처럼 자신과 아들 솔로몬도 죽임을 당할 위험 속에서(2열왕 1,11-12) 그녀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분명 밋 세바는 다윗이 하느님을 두고 한 맹세를 지켜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중하고 용감한 아내요, 어머니’였습니다.

간음과 살인교사로 시작된 다윗과 밋 세바의 인연을 어찌 아름답다고만 하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죄인이니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이들은 평생 죄책감으로 가슴만 치며 어둠 속에서 살기보다는,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택했습니다. 첫아이를 살려 주신사 하느님 앞에서 단식하며 침상에도 오르지 않던 다윗이 그 아이가 죽자 즉시 목욕재계하고 성전으로 가 경배를 드렸던 일이나(2사무 12,15-23), 밋 세바가 비록 부적절한 관계로 다윗 가문에 들었지만 장차 지혜로운 임금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고 왕위에 오르도록 온 힘을 다했던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죄를 보속하는 최선의 길은 그저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죽을힘을 다해 더 열심히 살아 다시 하느님 앞에서 선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이시고(마태 18,12-14), 잘못을 뉘우친 이가 다시 제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입니다(루카 15,11-32). 타마르와 라합과 롯과 밋 세바, 하나같이 참 부족한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실히 살아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죄인이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고, 머지않아 곧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 마련해 두신 구원 경륜을 살아가며 흡족하게 웃게 될 것이니 힘을 내라고 말입니다. **✠**

말씀 따라 잡기

새 시대의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 2,1-11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 반유닛 수녀

성모 성월인 5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전구자이신 성모님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갈릴래아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카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거행하는 관습이 있어 잔치가 계속되다 보면 음식이나 술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잔치의 흥을 돋우는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에게 무척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성모님은 술이 떨어져 당혹해 할 혼주를 대변하듯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요한 2,3) 하고 알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인”이라 호칭하는데, 이는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혈육관계를 넘어서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요한 2,4). 여기서 “때”(καιρός)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 그 정해진 ‘시간’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예수님께 대한 오만한 신뢰를 가지고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하고 지시한 후, 전구자는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원의에 따라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에 기쁨을 되찾아주는 첫 표징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소개됩니다. 곧 예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자기 계시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결례를 위한 물독의 물”(요한 2,6)은 옛 질서와 옛 계약을 상징하며, 물독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새 포도주’이심을 계시합니다.(요한 2,1-12) 구약에서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의 풍요로운 선물이며(아모 9,13-14 참조), 혼인 잔치는 메시아 시대를 나타냅니다.(이사 54,5-6: 62,4-5 참조) 따라서 이 표징을 통해 예수님은 옛 계약을 넘어 새 시대를 열어 갈 메시아이시며, 이제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드러낸 것입니다.(요한 1,14 참조)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징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표징’이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듯이(요한 2,11)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일상의 기쁨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말씀 맞히기 Q & A

1. 카나혼인잔치에 있었던 정결례에 쓰이던 물독은 몇 개였습니까?
2.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증인)은 누구입니까?
3. 포도주가 된 물을 맛 본 과방장은 누구에게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합니까?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5월 27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5월 29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전주지역에서의 사목방문

9월 22일 금요일

부주교와 이[李尙華] 신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보두네 신부와 나는 여산(礪山)읍을 거쳐 전주(全州)로 향했다(80리). 마지막 35리를 가는 동안 보두네 신부의 훌륭한 성당이 내내 보였다. 불행히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전동성당) 페네(Peynet, 裴嘉祿) 신부가 전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9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전주에 머무른다.

9월 26일 화요일

어제 나를 마중하러 전주에 온 스테파노[金洋洪] 신부와 함께 좋은 날씨에 115리를 여행했다. 해가 진 지 두 시간 후에 어은동(魚隱洞)에 도착했다. 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우리를 마중 나왔고, 그들이 부르는 성가가 힘들었던 하루의 마지막을 즐겁게 해주었다.

대구 : 마침내 건강을 회복한 프와넬(Poisnel, 朴道行) 신부가 상하이에서 대구에 도착했다.

9월 27일 수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교우들은 많이 왔는데, 아주 먼 데서 온 교우들도 있었다.

대구 : 프와넬 신부가 서울로 떠났다.

9월 28일 목요일

오늘 아침에 바로 성당과 학교를 강복해야 하는 시간에 비가 그쳤다. 이 학교에는 일본인 교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9월 29일 금요일

김 스테파노[金洋洪] 신부와 함께 전주로 돌아왔다. 마지막 40리를 가는 동안 비가 내렸다.

9월 30일 토요일

베르모렐 신부와 보두네 신부, 김 스테파노[金洋洪] 신부, 그리고 나는 수류(水流)로 떠났다. 깃발과 보병 나팔을 든 학생들이 20리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다. 미알롱(Mialon, 孟錫浩) 신부와 페네 신부를 만났다.

10월 1일 일요일 매괴첨례

대수류성당의 장엄한 강복이 있었다. 창미사, 종의 세례식, 성체강복, 견진성사, 그리고 저녁때는 장식 조명과 학교 축제가 행해졌다.

59. 사목적 전망 ④

서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랑하는 이들만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의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결합은 참되고 반복될 수 없으며 혼인성사로 확인되고 축성됩니다. 그러나 그 결합을 통해 부부는 주인공, 곧 그들 자신의 역사의 주인이며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계획을 창조하는 이들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완벽한 배우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각각 더 나은 남자와 더 나은 여자가 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성숙하게 해 준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목은 신혼부가 생명의 전달에 너그러워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217-222항)





제10차 세계가정대회 주제가 합창 · 중창 대회(비대면)

공식 주제가 '사랑의 주님'(번안곡)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교우들이 주제가 '사랑의 주님'을 듣고 노래하며 가정의 의미와 사랑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QR코드 스캔으로 확인 하십시오.


주제가 듣기


더 자세한 참가방법


악보 및 음원 다운로드

영상 업로드 기간 : 2022.6.1~6.10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사는 곳 주변의 쓰레기 줍기, 작은 텃밭 가꾸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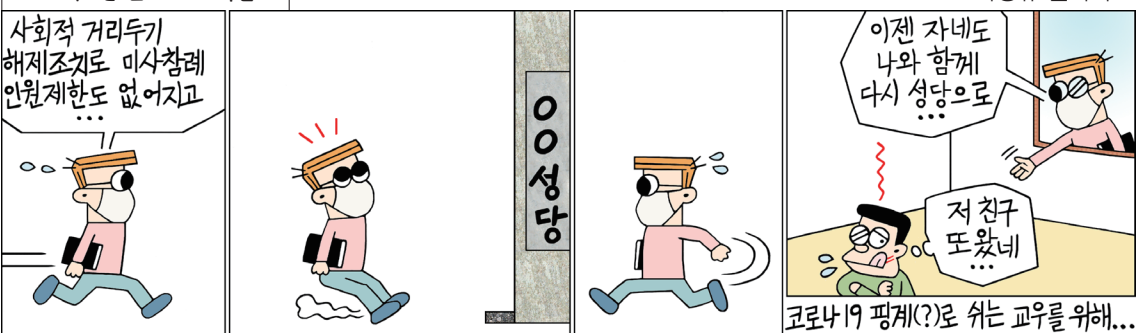
말씀의 해 안내지 70,71호 정답

70호 1. ④ 2. 12, 4천 3. 자기 자신을, 제 십자가 4. 나, 복음, 영원한 생명

71호 1. ② 2. 불신, 완고한 마음 3. ③ 4. ③

계속 열심히 노력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1대리구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5월 24일(화) 14:00 신암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23일(월) 11:00 범어성당		5월 24일(화) 19:30 다사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5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5월 23일(월) 11:00 수성성당		5월 25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한티순교자현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8일(토) 11:00 순례자성당		-

수도회 성소 | 피정

<http://www.holyfcac.or.kr>

문의: 김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일자: 6.4(토)~6(월) (2박3일)

주제: 수도생활과 마음의 영성

장소: 부산 장전동 본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010)3241-3107

성령강림절 대피정

일자: 6.4(토) 10:00~17:00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파교정의집)

강사: 이영숙 수녀, 윤원진 신부

미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문의: (010)9045-0191 / 차량 운행함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주제: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 마감: 6.2(목)

일자: 6.10(금)~12(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대구시 사수동)

문의: 한국CLC, (02)333-9898

교구 외 | 기타 알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바오로딸의 스케치북

일자: 5.28(토) 14:30~17:00

장소: 동성로 바오로딸서원 2층

대상: 너와 나의 인생곡을 나누고픈 청년

바뇌의 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5.26(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가톨릭 스카우트 신입대원 모집

대상: 초등 3학년~중등 1학년

신청: 6.12(일)까지

참조: 다음카페 가톨릭스카우트 대구지구

문의: 사무국장, (010)2810-8661

가톨릭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6.12(일) 17:00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문의: (010)3821-5455

신앙 안에서 자기돌봄과 내적치유

일시: 6.8(수)부터, 매주 2시간 (10주간)

오전반 10:00~12:00(10명)

오후반 14:00~16:00(10명)

교육비: 2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작 앞  053-959-7175
010-9597-7175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항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국내 국제 24년 전통
리스트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트리TV 운영
대구신로 결혼 칼럼니스트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산나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방법** 책 출간
M. 010.6571.3385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달병원 4층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달병원 3층
청라언덕(산남)역 9번 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병기(베네딕도) 신부
2018년 5월 25일
- 김영호(멜키울) 신부
1978년 5월 27일
- 윤사물(F.하비에르) 신부
1915년 5월 27일
- 최봉도(F.하비에르) 신부
2020년 5월 28일

교구 | 대리구 알림

‘찬미받으소서’ 주간 생태환경위원회 미사

일시: 5.24(화) 15:00~16:00

장소: 성모당

집전: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대구대교구 순교자 현양 기행문 공모전

주제: 친교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을
살아간 이들

방법: 교구 내 성지순례 후 기행문 작성

마감: 11.30(수) / 교구 홈페이지 참조

문의: 월간 <빛>, 255-8405

칠곡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개인 프로필 제출: Fax. 326-1501

문의: 본당 사무실, 323-1501

침산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신앙생활에 열심인 자, PC 능숙자

서류: 이력서(자소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 마감: 6.5(일)
문의: (053)352-4401 / (010)7455-4401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사범꽃꽂이, 성가반주오르간, 이콘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합창교실/성가교실): 월,화,목,금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금,토
CEO합창단: 수 19:00(가곡과 합창)
장소: 감삼동 평생교육원(용산역 5분)
문의: (010)3512-1565

38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국가: 캐나다, 필리핀
과정: 대학생 및 가족연수, 영주권
출국일: 4주 이상(개별 선택)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가톨릭요양원 영양보호사 채용

위치: 달성군 논공읍 설화명곡역
(통근차량 2회 운행)

대상: 남·여 요양보호사

문의: 616-2141 / 615-2141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칠곡가톨릭병원 신축병원 건축직 (계약직) 모집

자격: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축 유경험자

문의: 총무팀, 320-2079

SOS프란치스카의집(요양원) 어르신 모집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자)

위치: 대구 동구 검사동

문의: 986-2077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군(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방역소독(24시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례(비비안나) 신원섭(바오로)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금잔크림·세안비누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39년 전통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릴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그루 행정사

법인설립, 행정심판
토지보상, 민원대행

010-3534-1371

대표 이 경 배 (요셉)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및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칠서구 의용로 142 (이마트 앞삼거리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